

# 美 주류사회, 한복의 아름다움에 빠져들다.

## 아시아 소사이어티 모금 파티 성황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지부가 2016년을 '한국의 해' 로 지정하고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한국 예술가들을 초청, 각종 전시회 등을 열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인 '타이거 볼' 행사가 지난 9일 저녁 7시부터 다운타운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건물에서 열렸다.

약 700여명의 휴스턴 주류 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파티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의 이사장인 Edward R. Allen III 와 그의 한국인 아내 Chinhui Juhn씨가 주최했으며, Lou Ann, Alexander C. Chae 그리고 Susan Jhin씨와 Michael K. Jhin 부부가 Chair를 맡아 수고해 주었다.

문화원의 박원빈 원장이 모금 마련을 위한 경매 준비를 맡았으며, 휴스턴의 차대덕, 이종욱 화가를 비롯해 한국의 강인주 화가 등도 경매 물품을 기부했다.

백주현 총영사와 김기훈 한인회장, 배창준 민주당 휴스턴협의회장, 유재송 전 한인회장, 윤건치 전 KCC이사장 등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서는 경매 물품이 전시되는 가운데, 도쿄가든에서 협찬한 대형 스키바와 한국 전통의 부침개가 제공되었다.



곧이어 케빈 리씨의 아들 3형제가 치는 힘찬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시아 소사이어티 본 건물로 입장하던 참가자들을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복 디자이너 박신호(재스민)씨의 한복 작품을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의 환영 인사가 맞아들였다.

수잔 진씨가 기획한 이 아름다운 마중을 위해 디자이너 재스민씨와 김경선씨, 레이디버그 미용실의 해나김 사장이 수고해 주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왕과 왕비, 양반의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행사장 안을 누비며 빛발치는 사진 촬영에 응해주기 바빴다.

수잔 진씨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올해를 '한국의 해' 로 소개한것은 23년만의 일로 휴스턴 시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널리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양원호 기자>



Joanne Jung Bae (Realtor 배정숙)

SIGNATURE KELLER WILLIAMS REALTY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합니다.

350명의 에이전트가 함께하는 KELLER WILLIAMS SIGNATURE 부동산의 한인 에이전트 **Joanne Jung Bae**

Cell phone 713-933-7640

Office 281-599-7600

Email joannejsb@gmail.com

http://joannebae.kwrealty.com 920 S. Fry Road, Katy, TX, 77450



아시아 소사이어티

“뿌리를 알고 자부심 갖게 해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부모의 책무

타이거 불을 빛낸 사람들 수잔 진 인터뷰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가 주최한 2016년 타이거 불 모금파티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다.

주류사회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모양이다. 본지는 이번 타이거 불 파티를 준비하고 성공시킨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의 리더십멤버들 중 수잔 진 씨를 인터뷰 했다.

수잔 진씨는 남편 마이클 K. 진씨와, Lou Ann, Alexander C. Chae 씨 부부와 함께 Chairs로 활동했으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예절 등을 보여주기로 기획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떤 동기로 한국을 알리는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미국에서 나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던 딸에게 누군가 중국인이냐고 묻자 딸이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무척 놀랐다.

그래서 대전의 대덕초등학교에 세 자녀를 한학기 동안 다니게 한 적이 있었다. 그후로는 아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하더라.

시간과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모금이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뿌리를 알게하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한인학교에 보낸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본인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나?

9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지만 대학

을 졸업할 때 좀 연세대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후 펜실바니아주립대와 예일대 MBA 등에서도 한국 학생회 활동을 계속했다.

자녀들 학교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일을 계속했다고?

아이들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그 체험을 기억하고 보다 한국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보았었다.

이런 일들은 앞에 나서는 것 보다도 쉬우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더 중요한 일이다.

남편의 지원이 대단하다던데?

(남편인 마이클 K. 진씨는 성 루크 병원의 CEO로 14년간 재직했었다)

우리 남편은 비단 내 활동을 이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각종 회의에 동참해서 서포트해주거나 이메일을 써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와줘 늘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이번 타이거불에서 자랑하고 싶은 점은?

행사를 마치고 수많은 이메일들을 받았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손님을 맞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딸 학교(St John 고등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참가해주고 뉴욕의 한복 디자이너 재스민씨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주류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다.

주최자인 에디 알렌씨도 한복 인사와 패션쇼가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칭찬했고, 다른 휴스턴의 명사들도 한복 인사를 받으며 입장하는 동안 자신이 진짜로 존중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감사했다고 전해왔다.

그밖에도 이번 타이거불 행사에서 고마운 사람을 꼽는다면?

앤 박 문화원장이 자랑스럽다. 바쁜 와중에도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KCC 양 쪽

에서 봉사하면서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를 연결해 주는 큰 역할을 맡아 주었다.

<양원호 기자>



Joanne Jung Bae (Realtor 배정숙)

SIGNATURE KELLER WILLIAMS REALTY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합니다.

350명의 에이전트가 함께하는 KELLER WILLIAMS SIGNATURE 부동산의 한인 에이전트 Joanne Jung Bae

Cell phone 713-933-7640

Office 281-599-7600

Email joannejsb@gmail.com

http://joannebae.kwrealty.com 920 S. Fry Road, Katy, TX, 77450



REALTOR MLS